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남도"의 발전과제

김용웅 안양대학교 교수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지향하는 지역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산업화시대에는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대규모 소비시장을 갖춘 수도권과 동남권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여타 지역은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상대적인 침체로 자립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표준제품의 대량생산과 소비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첨단기술 및 혁신적 아이디어 상품이 지배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 발전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생산양식의 대두는 공간경제질서를 변모시키고 있다. 기존의 대도시와 산업지대는 쇠퇴하는 반면, 혁신지향적이고 환경적, 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거시적인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 함께 국가발전전략도 지역의 활력과 개성적 경쟁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배구조의 해체와 분권형 지역중심 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건설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육성 시책은 21세기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충청남도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산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개발수요 증대가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오염, 토지이용의 비효율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예견되는 성장을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환경적 쾌적성과 토지이용의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충남 지역이 통합된 경제와 삶의 공간으로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광역적 차원의 경관 및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 아산, 당진 등 도시 및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정비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은 새로운 중심지로서 모든 기능을 독점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특성적인 기능과 경쟁력을 갖추고 타지역과 상생발전을 주도하는 교류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치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산업·도시개발 입지수요를 억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산업과 시설을 선별적으로 유치,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민간부문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치중해야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이 추상적인 지역발전 비전과 당위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지역변영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낼 참여형 거버넌스체계(participatory governance system) 확립에 도정의 총체적인 역량 결집이 요구된다.